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2018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 수녀회의 관습대로 10 월 7 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호자이신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며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합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내가 네 한가운데에서 살리라.”라는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기 위한 큰 신뢰를 갖게 해 줍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매일의 모든 일들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스승이며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 암브로시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모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도미니칸 선교 성소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자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부르심은 기쁨과 희망의 동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루카 1,28)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라는 말로 시작되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기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큰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가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 주신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기쁨에는, 당신을 따르도록 불러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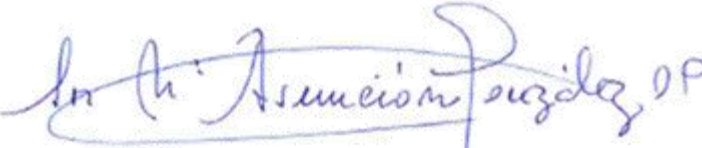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마리아가 말하듯이, 당신 자비를 세세대대로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시대의 표지들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미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난민들, 가정이 없는 어린이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천사의 예고를 받으신 다음 성모님은 당신 품에 지닌 이 크나큰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 즉시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자 달려가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각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 각자는 성령의 충동으로 오늘 우리의 성소를 열정과 희망, 기대, 열렬하고 관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이르고 아무도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기원합니다.

형제적 포옹과 제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